



# 기존 국소의치에 맞는 CROWN 제작법

우이형/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기존 국소의치의 지대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Crown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의 국소의치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제작한 지도 얼마 안된 국소의치이고 환자도 국 소의치의 사용에 만족하는 경우에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국 소의치에 맞도록 Crown을 재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방 법이 있는지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 특히 본인이 치료한 환자의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해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국소의치에 맞게 crown을 재제작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도 정확하게 기 존의 국소의치에 맞도록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소의치도 기공소로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 동안 저작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crown이 재제작 되는 동안에도 환자는 계속 국소의치를 사용할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쉽, 정확하게 환자로부터 국소의치를 제거할 필요없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잘못된 crown을 제거하고 필요한 우식, 근관 치료 등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지대치를 삭제하고 통법에 따라서 지대치 인상을 채득합니다. 물론 이때 국소의치를 장착하지 않고 인상을 채득합니다. 채득된 인상으로 모형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는 일단 모형 제작 후에 일반적으로 하루 후에 재내원을 약속 합니다. 제작된 모형을 정상적으로 die trimming하고 die 상에 Duralay, Pattern 또는 Palavit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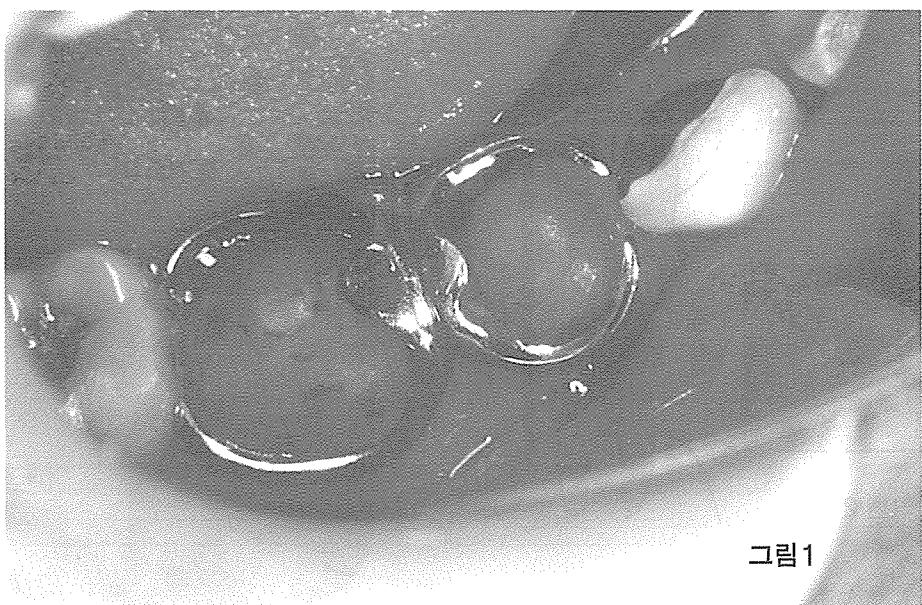


그림 1

와 같은 direct resin으로 resin coping을 제작합니다.

이때 resin coping은 국소의치의 금속이 지나는 부위에만 얇게 형성하며 특히 변연 부위는 레진으로 덮이지 않게 해서 조작시에 wax로 정확하게 변연을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resin coping을 준비한 후에 환자를 재내원 시켜서 (물론 이 동안에도 환자는 temporary crown 상에 국소의 치를 장착하고 있음) resin coping을 구강 내에 시적하고 교합 관계를 확인해서 접촉 부위는 제거하고 국소의치를 장착 시켜 봅니다. (그림 1. 구강 내에 resin coping을 시적하고 국소의치를 장착하여 유지 장치와의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진이다.)

이때 resin coping에 국소의치가 걸리면 그 부분의 레진을 제거하고 국소의치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소의치와 resin coping간에 간격이 있도록 합니다. 국소의치의 유지 장치와 레진 간의 공간에 brush on 방법으로 레진을 추가

합니다. 이때 레진 면이 깨끗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소의치 장착 전에 유지 장치의 내면을 silicone wheel로 연마 후에 장착하는 것이 깨끗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진이 경화된 후에 국소의치를 제거하면 대개 resin coping도 동시에 제거

공간을 완전하게 채웁니다. 일단 레진이 경화되면 제거하고 금속과 닿는 레진 면이 깨끗한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 모형과 resin coping을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사는 금속이 닿았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wax를 이용하여 통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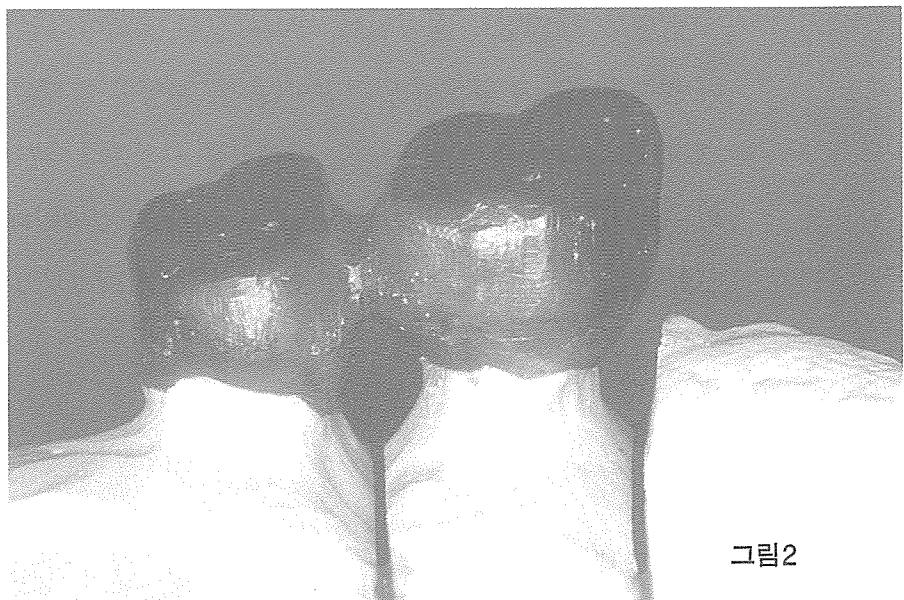


그림2

됩니다.

이 상태에서 minor connector와 indirect retainer 하방으로 레진을 추가해서 resin coping과 유지 장치사이의

로 조각하여 매몰, 주조합니다.(그림2. 금속접촉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wax로 조각한 사진이다. 진한 부분이 레진 부분으로서 이 부위에는 wax가 추가되지 않아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crown의 제작 중에 환자가 국소의치를 제거해서 기공소로 보낼 필요가 없으며 가장 정확하게 기존의 undercut, guiding surface, rest seat 등을 재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이렇게 해서 제작된 crown으로서 기존의 국소의치에 잘 적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점은 환자가 resin coping을 국소의 치에 맞게 레진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내원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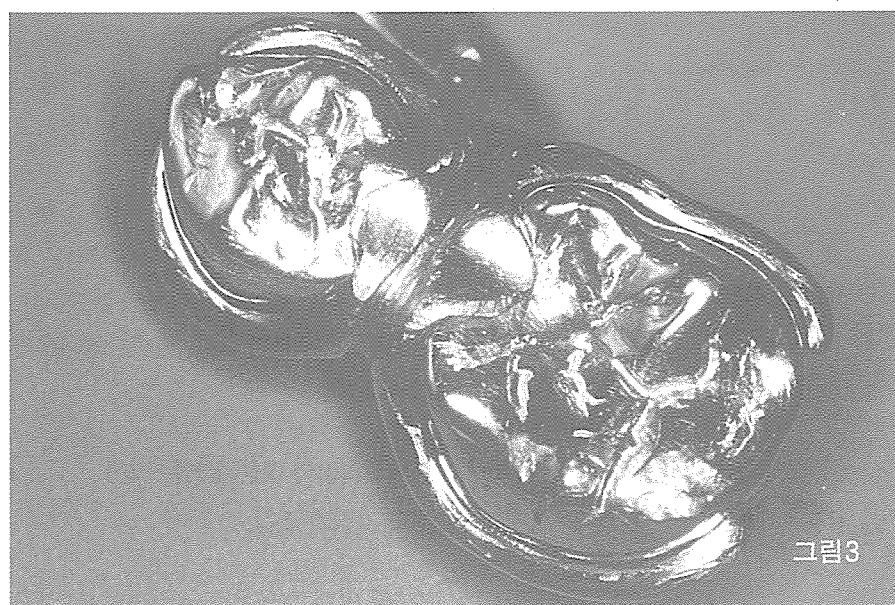


그림3